

투데이

“입학사정관제, 대도시 학생들에 유리”

광주·전남 고3 담임 75% “학부모 부담 ↑”
박혜자 의원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광주·전남지역 고교 3학년 담임교사들은 ‘입학사정관제’가 고소득·전문적 중상자 자녀와 중·소도시보다 대도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최근 광주·전남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620명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4%(46명)에 그쳤다. 학부모가 전문직일 경우에는 77.4%(480명)가 ‘매우 유리하다’ 또는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준비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늘었다고 대답했다.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들의 인성측면 반영과 창의적 인재 선발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교사의 40%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남도 관계자와 취재기자들이 2일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12 국제농업박람회 프레스 오픈' 행사에서 대형 호박 등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최한혜기자 choi@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 5일 막 오른다

전남농기원내 10만명 부지 24개국 지자체·기업 참여 12일까지 초등생 무료입장

전시관별 볼거리

Table with 2 columns: 전시관명 (Exhibition Name) and 주요 볼거리 (Main Attractions). Rows include 생명농업관, 농업미래관, 농업예술관, and 산업공공관.

특별전시

Table with 3 columns: 전시명 (Exhibition Name), 전시내용 (Exhibition Content), and 전시장소 (Exhibition Location). Rows include 천연염색 50인 초대전, 국제 임화전, 농촌진흥50년 사진전, 우수포장디자인상품전시, 전통문화기전, 일찌이름기전, 정크아트전.

국내 유일의 농업종합박람회인 '2012 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는 5일 개막해 2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전 세계 24개국에서 420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관련 단체 및 기업이 참여하기로 해 벌써부터 성공 개최를 예상하게 하고 있다.

특히 5m 키다리버와 희귀 채소, 컬러푸드 등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다양한 농업기술이 한자리에 모여 농산품과 농기계, 국제 교역과 농촌 어메니티를 아우르는 국내 첫 농업 종합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생명농업관, 농업미래관, 농업예술관 등 '빅3'로 불리는 3개 주제 전시관을 비롯한 8개의 전시관은 박람회장의 핵심 콘텐츠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초가집 박터널, 지름 16m 상상의 나무인 '모뉴트리', 20여종의 과일 1000개로 만든 '과일의 집', 10만개 누에고치로 만든 대형 누에, 여수엑스포 당시 큰 인기를 모았던 '전남 갯벌전시관'도 빠트릴 수 없는 전시물이다.

개막 3일을 앞둔 2일 현재 전체 공정률은 98%에 달하고 입장권 판매도 순항하는 등 손맛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평~송현간 국지도 55호선 중 남평~박람회장까지 일부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지난날 말조기 개포해 접근성을 높였고 버스 200대와 승용차 516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했다.

60만장으로 잡은 입장권 판매 목표량 가운데 예매로 채울 예정

인 40만장의 92%인 37만장도 이미 판매했다.

국제농업박람회 조직위는 생명산업의 소중함과 농업의 중요성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개막일인 5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초등학생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으로 했다.

조직위 박래복 사무국장은 “예산 관리를 105만명으로 잡고 있는데 목표가 달성된다면 생산유발효과 1572억원, 고용창출 2107명, 판매액 67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남해안 선벨트’ 사업 7년만에 본격도

국비 첫 반영...진도항 배후지 조성·고흥 우주랜드 등에 26억

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남해안 선벨트(Sun Belt)’ 사업이 프로젝트 구상 7년만에 본격도에 오르게 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태호 당시 경남지사가 남해안 시대를 선언하며 첫 구상한 남해안 선벨트 사업이 특별법 제정과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2년여 만에 본 사업에 국비가 첫 반영됐다.

그동안 남해안 선벨트 사업은 2020년까지 167개 사업에 24조3900억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당초 의지와 달리 섬진강태마로도, 고흥 미관마을 개천사업 등 시범사업 중심으로 근근이 명맥만 유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에 남해안 선벨트 본사업인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과 고흥 우주랜드 등 4개 사업이 새로 반영돼 국비 26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중 전남도에 해당하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과 고흥 우주랜드 국비 예산은 14억원이다.

이는 당초 요구액 93억원에는 못미치지만, 동·서·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본사업 중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해안 선벨트 사업 추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제선 전남도 남해안선벨트지원관은 “국토해양부와 전남도, 해당 군이 혼연일체가 돼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354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전남도와 진도군이 지방비 10억원을 확보해 10월 중 실시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흥 우주랜드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인 나로우주센터 주변 12만 3000㎡에 2016년까지 290억원을 투입, 우주항공 관련 테마공원, 체험시설, 숙박시설인 ‘우주 Inn(인)’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진도항 배후지 조성은 서망항과 광목항 일원 57만5000㎡를 수산 가공과 유통, 해양관광의 전초기지로 조성하는 복합해양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평동에 1억달러 태양전지공장

씨티아이(주), 시와 투자협약...연내 착공

광주에 박막형 CIGS(구리·인듐·갈륨·셀레늄) 태양전지 제조업체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박막형 CIGS 태양전지 제조업체인 씨티아이(주)와 1억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씨티아이(주)는 미국의 대표적 박막 태양전지 생산업체인 솔로파워(Solo Power)사의 한국내 판매와 공장설립

아이는 올 연말에 광주 평동의국인 투자지역 3만9660㎡ 임대 부지에 공장을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씨티아이는 미국의 대표적 박막 태양전지 생산업체인 솔로파워(Solo Power)사의 한국내 판매와 공장설립

독점권을 가진 업체다.

박막형 CIGS 태양전지는 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또는 다른 박막형 태양전지에 비해 높은 효율과 낮은 생산비용 등의 장점이 있어 각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박막형 CIGS 태양전지 제조업체가 들어서면 생산인력 220명과 연구진담인력 30명 등 총 250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희진기자 luck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public servant recruitment. Title: 공무원 대출 (Public Servant Recruitment). Features: 5.5% interest rate, 1,000,000 to 8,000,000 won. Includes a table for loan amounts and interest rates.

Advertisement f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pecial Recruits. Title: 넝쿨째 굴러온 더불어민주당 (Rolling down like a log, the Democratic Party). Features: 100% employment guarantee, list of candidates and their backgrounds.

Advertisement for Hankook Real Estate. Title: 한국공인중개사 (Hankook Certified Real Estate Agent). Features: Real estate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Advertisement for Goseung-dang. Title: 좋은술의 고집 국순당 (Goseung-dang's Persistence in Good Alcohol). Features: Wholesale recruitment for Goseung-dang product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products.